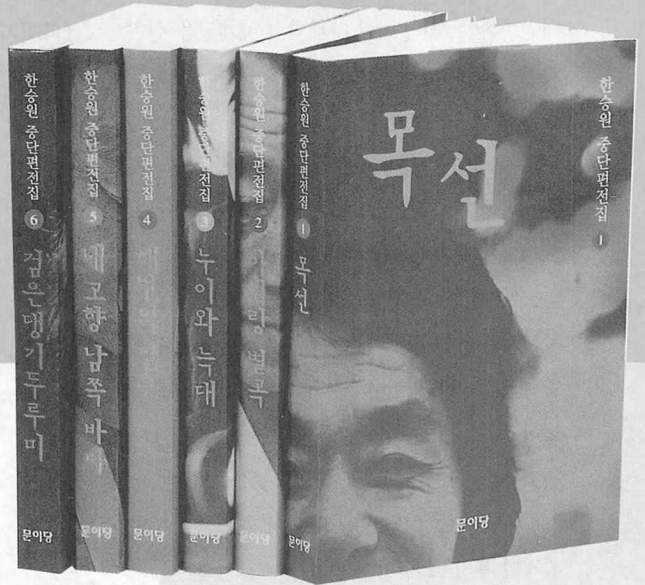


토속적 한의 세계에서 건져올린 '해인삼매'의 문학

필력 32년 집대성한 《한승원 중단편전집》 펴낸 한승원씨

소설가 한승원씨가 32년 소설역정을 중간결산한 《한승원 중단편전집》을 펴냈다. 전남 장흥의 '해산토굴'에서 제2기 문학인생을 살고 있는 그는, 파도가 넘나드는 남도 바닷가에서 우주적 깨달음을 승화시킨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작가가 깨달은 것이 삶의 진실이 아닌가 하고 독자에게 겸손하게 묻는 것', 그는 문학을 이렇게 정의했다.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울산리. 뒷산 '인산(仁山)'에 밤나무가 많다고 붙여진 마을 이름. 지척에는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목선이 파도에 몸을 뒤척이는 곳. 그곳에서 소설가 한승원씨(60)가 은자처럼 살고 있다. 은거지 '해산토굴(海山土窟)'에는 몸소 쓴 현판이 댓잎 서걱거리는 소리, 번뇌를 멀리 떨쳐버리는 풍경소리와 함께 말없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지난 97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와 지은 작업실이다.

'해인삼매'에 빠진 은거의 소설가

지난 8월에 펴낸 시집 《노을 아래서 파도를 쭈다》(문학과지성사)에는 그의 근황이 담겨 있다. 그는 이곳에서 자유자재와 남부럽지 않은 부(富)를 누리며 산다. "이 산하의 악귀에게 남은 삶을 담보로 빚을 내다가 마을 앞의 바다 사고 미역냄새 나는 갯바람 사고 도화살 같은 아침노을 사"(<부자 된 내력>)서 살기 때문이다.

작업실에서 꼭두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다가 "수목빛 밤 안개 자욱한 바다에 떠 깜박거리는 주주미잠이매의 등불"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저렇게 깜깜한 밤을 반딧불로 헤치면서 무엇인가를 잡는 것이다"(<어등>)는 '해인삼매'(海印三昧: 바다에 풍량이 멈추면 삼라만상이 모두 바닷물에 비치는 것처럼 번뇌가 끊어진 깨달음

의 상태)에 빠져 산다.

이번에 펴낸 《한승원 중단편 전집(전6권)》(문이당)은 이렇듯 '천석고황'의 삶을 누리는 그의 32년 문학인생에 바쳐진 기념비다. 이 전집에는 1968년 등단작 <목선>부터 최근작 <유자나무>에 이르는 총70편의 중·단편이 남해의 신비와 주술을 섬처럼 거느리고 있다.

작업실 '해산토굴'은 그 자체가 그의 문학적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다. 해산(海山)은 그의 자호. 원래 증조부의 상석을 세울 때 바닷가에 우뚝 솟은 산이라는 뜻으로 이 자호를 헌정했다.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사전을 펼쳐보다 해산이 '바닷속에 솟아 있는 봉우리'라는 뜻이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

"가시적인 산으로서의 해산은 증조부께 드리고 내 호는 비가시적인 산으로서의 해산을 취했습니다. 토굴은 자신이 사는 집을 겸허히 부르는 말로 참되게 살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내가 나를 탐구한 소설 《해산 가는 길》에서 이런 내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비적인 바다가 작품세계의 모태

그의 소설은 토속적인 한, 원시적 생명력과 에로티시즘 등이 농익은 세계로 평가받아왔다. 이번 에 나온 중·단편 전집은 이런 평가를 다시 확인

하게 한다. 그의 작품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장흥 바다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고향인 회진면 새터물 주민들이 포구 갯바위 위에 '한승원 문학현장비'를 세워주기도 했다. 조형석에는 고향을 그린 소설 <해일>의 도입구를 새겨 놓았다.

"나는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내 작품의 9할은 바다와 섬사람들 얘기지요. 바다는 장엄한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서구적 의미에서 악마적이고 마녀적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이 기능할 수 없는 무한대의 생명력이 넘치기에 신화적이고 신비적입니다."

바다는 원시적 힘의 울동이 비롯되는 곳이기도 하다. 인간은 바다를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 바다에 나갈 때마다 비나리, 용왕제를 지내왔다. 바다와 타협하고 화해하려는 인간의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바다와 인간은 영원히 화해가 불가능하다. 다만 근원적 화해 없는 일시적 화해만이 있을 뿐.

"그런 바다와 그곳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관능적입니다. 섬과 바다의 관계는 성적이지요. 바다가 늘 출렁거리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면 섬은 우뚝 솟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바다와 섬이 하나로 어우러져 오르가슴에 이르지요. 내 소설 속의 관능과 에로티시즘은 바로 섬과 바다의 관계에서 탄생했지요."



전집출간을 계기로
제2기의 문학인생을 맞이한
한승원씨(문이당 사진제공)

바닷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더 짙은 허무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산다. 뱃사람들이 물에 오르면 더 광폭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질척거리는 관능과 에로디시즘은 허무와 절망을 넘어서려는 바닷사람들의 몸부림이다. 농부들이 이승과 저승의 거리를 '문턱 너머 저승이 있다'고 표현했다면, 뱃사람들은 '한치오폰 너머 저승 세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치오폰은 바로 배의 두께를 말한다.

억척스런 삶, 운명적 한 그려

원시의 생명력이 출렁거리는 그의 작품공간에서 사람들은 서로

운명적으로 얽히면서 살아간다. 등단작 <목선>처럼 억척스런 삶과 운명적 한을 품기도 하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처럼 슬픈 사랑의 운명에 이끌려 서로 사랑하고 증오하고 화해한다.

"나는 숙명과 운명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운명을 '순리'라고 보지만 숙명은 정해진 운명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운명은 주인이 밀고 가는 대로 방향을 바꿉니다. 결국 운명은 인간이 극복하는 것이고 그것도 순리에 따릅니다. 내가 소설가가 된 것도 운명이지요."

사람들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뭇잎이 그저 흔들릴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뭇잎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여긴다. 그것이 살아 있는 존재기 때문이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단지 그 흐름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의 큰 물결 속에서 각 개인들이 반응하는 거지요. 자기 밖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인간은 살기 위해 저항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가장 원형질적인 순리를 어기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민속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방대한 토속적 세계가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내 고향 남쪽바다>에서 '소한, 대만에 죽은 귀신들은 물에 밥도 못 얻어먹는다' '정월, 2월 높 바람은 돌부처도 눈물을 뚝뚝 흘린다' '봄철 문저리는 개도 안 먹는 법이고, 9월 광어는 그놈이 었드려 있는 갯벌만 떠다가 먹어도 맛있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것은 고향에서 습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지요. 내 소설 속의 고향 이야기는 동어반복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게 배우면서 쓰기 때문입니다. 민속지, 해류, 물고기의 생태, 고향의 역사 등을 통해 자연의 풍물 하나라도 거대한 원리에 따라 운행됨을 깨닫게 됩니다."

늦깎이 시인으로서도 활동해

그는 <열애일기> <사랑은 늘 혼자 깨어 있게 하고> <노을 아래서 파도를 줍다>(문학과지성사) 등 세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기도 하다. 소설로 먼저 등단해 작품을 써왔지만 시인으로서의 열망도 한편에 간직하고 있었다. 50대 초반 병마가 찾아들어 소설 창작이 어려워졌을 때 쓴 시들이 <열애일기>에 묶였다.

"시와 소설은 표현양식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같습니다. 시는 삶 속에서 보석 같은 깨달음을 낳는 것입니다. 시는 '쓰는 시'와 '찍어진 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쓰는 시'는 기교와 머리로만 제작하는 시지요. 하지만 '찍어진 시'는 값지게 산 사람이 사리를 남기듯 그렇게 찍어진 시입니다."

그는 묘사시를 잘 쓰지 않는다. 시에서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삶 자체에서 우러난 보석 같고 사리 같은 깨달음이 시가 됐다. 결국 '찍어진 시'를 쓰려면 진지하고 값지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일러주듯 삶과 시는 둘이 아니고 하나기 때문이다.

"결국 작가는 우리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묻는 거지요. 작가가 깨우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실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내 시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하고 독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한 소설을 쓸 것이다"

그는 전집 서문에서 문학적 유언장을 작성했다. "나는 살아 있는 한 소설을 쓸 것이고 소설을 쓰는 한 살아 있을 거"라고. 다시 말해 소설 쓰는 일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을 것이며, 소설을 쓰지 못하면 죽어도 미련이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제부터 내가 쓰려는 소설은 가시적인 바다와 비가시적인 바다, 가시적 우주와 비가시적 우주를 하나로 아울러 승화시킬 것입니다. 우주적 공간을 나만의 시각으로 조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소설가로서의 내 작업이 제1기에 해당했다면, 이제부터는 제2기적 소설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내년 4월경 출간예정인 장편 <사랑>을 쓰고 있다. "사랑은 우리를 가장 생명체답게 이끄는 힘의 울동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찬양하게 하고 최후의 범멸을 느끼게 하는 삶의 구경이지요. 내가 깨달은 사랑의 진실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고 독자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고 말하는, 판소리 한가락을 빼닮은 목소리 너머 간간이 파도 소리가 섞여들고 있었다. - 장흥·박천홍 기자